



스켈레톤은 과학의 집합체다. 선수의 기량뿐만 아니라 트랙의 상태와 경기 당일 날씨, 온도 등에 따른 썰매의 날 하나하나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유니폼과 헬멧도 가벼우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100분의1초까지 계산해 순위를 가리는 종목의 특성상 디테일의 중요성은 몇 번을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창 알펜시아 트랙을 달리고 있는 윤성빈을 연속촬영한 사진. 스포츠동아 DB

온도·습도에 따라 날 선택...윤성빈 썰매는 '과학의 집합체'

과학으로 본 스킨스케이팅

시속 145km비결, 얼음과 날의 미세한 차이 윤성빈, 브롬리 코치 썰매로 세계정상급 우뚝 헬멧 공기저항 최우선...신발은 발끝에 금속

썰매 종목은 선수의 기량이 첫 번째지만 장비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스킨스케이팅은 형태 종목인 봅슬레이와 비교해도 헬멧과 유니폼에 더 세심한 정성이 필요하다.

썰매는 특히 과학의 집합체다. 스킨스케이팅은 길이 1m 안팎의 납작한 썰매를 밀고 달려 앞으로 탑승한 뒤 1200~1500m의 트랙을 미끄러져 내려간다. 썰매 무게는 대개 33kg이상이 일반적이다. 33kg을 초과하면 선수의 몸무게와 더한 총합을 115kg이하로 제한한다.

윤성빈(24·강원도청)은 스타트 능력에서 세계 최강이다. '신성'으로 불리며 세계랭킹 1위로

뛰어오른 비결이다. 매일 옷뭉일으키기 1000개를 하며 단련한 근력으로 출발과 함께 썰매와 달려 가속도를 붙인다. 다른 경쟁 선수들에 비해 주행경험이 부족하지만 '과학'이 그 유일한 단점을 채우고 있다.

이세중 SBS 스킨스케이팅 해설위원은 "스켈레톤은 브롬리와 슈나이더 썰매가 가장 유명하다. 윤성빈은 브롬리 썰매를 탄다. 세계 3대 썰매 제조사를 운용하고 브롬리 형제의 둘째 리처드 브롬리가 바로 윤성빈의 코치다"며 "윤성빈은 코스 이해도와 주행실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브롬리의 작품으로 봐도 된다. 절대적인 존재다. 온도, 습도에 따라 썰매의 날을 정확하게 선택해 장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롬리 코치는 2014년부터 윤성빈의 장비 담당 코치를 맡았고 세계랭킹 22위권이었던 윤성빈은 주행능력의 향상과 함께 세계 최정상급으로 우뚝 섰다. 브롬리 코치의 장점은 즉석에서 썰매의 미세한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직접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세심한 맞춤형 제작도 가능하다. 브롬리 코치의 형 크리스티안 브롬리는 영국대표팀 코치로 활약 중이다.

윤성빈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썰매 날을 5개에서 10개로 늘렸다. 이세중 위원은 "춥고 건조한 날, 춥고 습한 날, 안 춥고 건조한 날, 안 춥고 습한 날, 0도부터 영하 2.5도, 7.5도, 10도에 맞춰 브롬리 코치가 날을 달리 선택한다"며 "날은 활처럼 휘어있다. 휘어진 각도가 클수록 마찰이 줄어들어 속도가 빠르지만 그만큼 불안정하다. 정상급 선수들은 날의 휘는 각도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성빈의 주행 속도는 최고 시속 145.44km다. 프로야구 투수가 던지는 강속구에 못지않은 빠르다. 그만큼 얼음 상태와 날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켈레톤은 썰매 날 하단의 후과 에지를 무릎으로 눌러가면서 조종한다. 얼음 상태에 최적화된 날을 장착 할수록 조종도 수월하고 속도도 빨

라진다. 규정상 경기 시작 45분전까지 날 세팅을 완료해야 하며 한번 장착한 뒤에는 2차 레이스까지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장비 담당 코치의 판단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켈레톤은 썰매 안에 탑승하는 봅슬레이와 달리 선수가 밖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주행하기 때문에 유니폼과 헬멧에서 큰 차이가 있다.

헬멧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니폼은 얼음 조각이나 칼날에서 보호받도록 매우 두꺼운 특수 재질의 섬유를 쓴다. 윤성빈은 국내 기업인 에이치제이시 헬멧을 쓴다. 유니폼은 아디다스가 제작한다. 신발은 스타트를 돕기 위해 발끝에 금속재질이 박혀 있다.

윤성빈은 최고의 운동능력을 갖고 있다. 스킨스케이팅에 최적화된 순발력과 답력을 갖췄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스킨스케이팅이 주는 공포감은 톨러코스터보다 더 극심하다. 정상급 선수들도 하루 2~3차례만 주행훈련을 하는 이유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썰매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체

력소모가 크고 정신적으로도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성빈은 최근 하루 9차례나 주행훈련을 소화하기도 했다. 투지와 승부욕이 없으면 불가능한 훈련양이다.

그러나 스킨스케이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세계 정상에 오르기 매우 힘든 종목이다. 썰매가격만 2000만원에 이른다. 유니폼도 모두 맞춤 제작이다. 장비 코치와 엔지니어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장비 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는 탐험가 옆에 걸잡이 썰매가 있듯이 윤성빈에게도 든든한 후원기업이 있었다.

LG전자는 종목 이력조차 생소했던 2015년부터 스킨스케이팅 대표팀과 윤성빈을 후원해왔다. 여전히 메인 스폰서로 국내외 전지훈련 및 장비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LG전자와 함께 국민은행, 포스코대우가 윤성빈을 후원하고 있다. 윤성빈은 유니폼에 해당 기업 로고를 부착하고 전력을 다한 스타트도 보답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윤성빈 발굴한 '한국 썰매의 개척자' 강광배

2012년 고3 윤성빈 대학팀에 데려가 훈련 물심양면 지원...3개월만에 국가대표 선발

윤성빈(24·강원도청)이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본인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썰매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에서 혼자 힘으로 정상에 오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윤성빈도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 조력자 중 한 명이 강광배(44) 서울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부회장이었다.

● "썰매 타고 싶은 사람 어디 없나"

현재 한국체대 교수 겸 썰매 종목 감독으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강 부회장은 한국 썰매의 선구자다. 1998나가노동계올림픽에 루지국가대표로 출전해 한국 썰매를 세계에 알렸고, 2002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에선 스킨스케이팅을 탔다. 2006토리노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해 김동현(30·강원도청)과 짝을 이뤄 2인승봅슬레이를 탔다. 당시 메달권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종목을 바꿔가며 세 종목에 올림픽 대표로 나선 '썰매 개척자'는 단순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단지 썰매 종목에 몸담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했다. 2008~2009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아메리카컵 2차대회 4인승봅슬레이에선 500달러를 지불하고 빌린 썰매를 타고 동메달을 따낸 것은 그의 썰매 사랑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강 부회장이 토리노올림픽에 출전한 2006년 당시 한국 썰매 인프라는 열악했다. 특기생 뽑을 때 지원자가 넘치는 인기종목과 차이가 컸다. 강 교수가 달고 살았던 말이 "봅



강광배 현 한국체대 교수는 지금의 윤성빈을 발굴한 인물이다. 2012년 신림고에 재학 중이던 윤성빈의 운동신경을 눈여겨본 뒤 그를 스킨스케이팅의 세계로 안내했고, 월드클래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했다. 강 교수는 지금도 한국체대 봅슬레이스켈레톤부 감독을 맡아 신진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슬레이나 스킨스케이팅 하고 싶은 사람 있느냐"였을 정도다. 2004년 한국 썰매대표팀 감독을 맡은 뒤에도 늘 그랬다. 강 부회장이 토리노올림픽과 2010밴쿠버동계올림픽에 모두 선수 겸 감독으로 나선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오랫동안 강 부회장과 함께한 이세중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선수와 코치, 감독은 물론 마케팅, 광고까지 (강 부회장) 혼자 다 하셨을 정도다. 회사(서울연맹)를 설립했으니 '내가 무조건 해내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셨다"고 돌아봤다.

● 강광배가 없었다면 윤성빈도 없었다

선수를 수급하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다.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보니 운동신경이 뛰어난 젊은 피를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강 감독의 눈에 들어온 이가 2012년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윤성빈이다. 그해 서울체고에서 열린 테스트에서 윤성빈의 달리기 기록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눈여겨보고, 주저 없이 한국체대 봅슬레이스켈레톤팀으로 데려가 기존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했다. 주말에는 자신의 집으로 윤성빈을 데려가 숙식을 함께했다. 스스로 점찍은 선수를 책임지고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그 덕분에 윤성빈은 강 부회장을 만난 지 3개월 만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했다. 신림고 졸업 후에도 강 부회장이 몸담고 있는 한국체대에 입학해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윤성빈이) 한국체대에 입학한 뒤 스킨스케이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다." 이 위원의 회상이다.

선수 수급을 걱정하던 한국 썰매의 저변이 확대된 것도 강 부회장의 업적이다. 이제는 윤성빈의 뒤를 이을 유망주의 기량 향상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의 바람은 한국이 꾸준한 썰매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스킨스케이팅이 주력 종목이다. 이 위원은 "한국 스킨스케이팅의 미래는 밝다. 한국체대에 신입생 두 명이 들어오는데,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posterboy@donga.com

윤성빈, 두쿠르스 가문에 도전

마르틴스 두쿠르스 8년연속 세계랭킹 1위 아버지는 트랙 관리자, 친형도 톱레벨 선수

두쿠르스 가문은 '스켈레톤의 왕조'다. 윤성빈(23)이 헤성처럼 등장하기 전까지 마르틴스 두쿠르스(34·라트비아)는 스킨스케이팅의 황제로 불렸다. 그의 친형 토마스 두쿠르스(37)도 세계적인 선수다. 마르틴스 두쿠르스는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2009~2010시즌부터 2016~2017시즌까지 무려 8년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월드컵에서만 50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땀지만 러시아 알렉산드르 트레티야코프가 도핑 규약을 위반해 금메달이 박탈되며 뒤늦게 올림픽 챔피언이 됐다. 2010밴쿠버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성빈이 세계 최고수준의 스타트 능력을 갖고 있다면 두쿠르스는 압도적인 주행능력으로 10년 가까이 스킨스케이팅 세계를 지배해왔다.

두쿠르스의 아버지는 스킨스케이팅 트랙 관리자가 직업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스킨스케이팅 썰매와 처음 만난 윤성빈과는 출발부터 달랐다. 스킨스케이팅은 매우 위험한 종목이다. 두쿠르스는 14세에 스킨스케이팅에 입문했고 신의 경지라고 평가되는 조종술을 익혔다. 친형 토마스와 각 트랙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그러나 평창은 윤성빈의 안방이다. 주행경험은 스킨스케이팅의 승부를 가른다. 노련한 두쿠르스지만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드 등 스타트 코스만큼은 경험에서 윤성빈이 앞선다.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러시아 니키타 트레구보프도 윤성빈의 강력한 경쟁자다. 독일 알벌은크는 기록이 크지만 기록이 좋을 때는 메달권이다. 소치 금메달리스트 트레티야코프는 기술적으로 전성기를 맞아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명이었지만 약물 복용으로 출전권이 박탈됐다.

이경호 기자